

30. 아파트 관리자에서 악화된 천식

성별 남 나이 35세 직종 건물관리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정○○은 2004년 3월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반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빗물 집수정 침전물 제거 작업 도중 평소 앓고 있던 천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전기반장으로 평소 전기시설 안전진단점검 및 발전설비검사를 하였고 2005년 6월 19일 사망 이전 약 1개월간은 장마철을 앞두고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많았다. 6월 16일에는 지하 2층에 있는 빗물 집수정 침전물 제거작업을 하였다. 총 6개의 빗물 집수정이 있어 빗물이 고이면 배수펌프를 가동해 지상으로 배출하지만, 항상 일정 수위(1 m이내)의 빗물이 집수정에 고여있다. 침전물제거 작업은 3년 만에 제거하는 작업으로 현장은 거미줄이 널려있고 악취가 심하였다. 항상 빗물이 고여있는 상태며 생활 쓰레기가 부패하여 각종 박테리아 및 곰팡이 등 세균이 번식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하루 1갑씩 15년간 흡연하였고 천식이 있다고 되어 있었고, 실제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부단자검사서에서 집먼지진드기 및 곰팡이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4. 결론: 근로자 정○○은

- ① 천식을 앓다가 사망하였는데,
- ② 과거 약 13년간 수행한 전기관련 고유 업무는 천식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 ③ 사망하기 1-2개월 전부터 늘어난 업무량 자체도 기존의 천식이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만,
- ④ 사망하기 3일 전 수행한 부패한 침전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의해서는 각종 세균 및 내독소 등에 노출되어 기관지 염증 및 그로 인한 기관지 폐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정○○는 기존의 천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